

페퍼스, 눈물의 23연패 탈출...대역전 드라마 썼다

한국도로공사에 3-2 역전 승 괴롭힘 의혹 등 해결 과제 남아

페퍼스가 연패를 끊으며 최악은 면했지만, 앞서 불거진 선수간 괴롭힘 의혹 문제를 남겨두고 시끄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지난 23일 경북 김천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전에서 세트스코어 3-2(23-25 24-26 25-22 27-25 15-9)로 승리하며 23연패를 탈출했다.

단일 시즌 및 통산 여자부 최다 연패 기록 경신에 이어 남자부 단일 시즌 최다 연패 기록(25연패)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얻어낸 극적인 결과다.

이번 승리로 다행히 최악의 연패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페퍼스에는 '선수단 내 괴롭힘 의혹' 문제가 남아 있다.

최근 페퍼스의 베테랑 선수 A씨가 후배 선수 B, C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고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B, C 선수는 지난해 말 팀을 나간 상태다.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상벌위원회 회를 열고 선수 A씨와 피해 주장 선수 B, C씨를 불러 양측의 입장을 들었지만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상벌위는 양측의 의견이 상이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소명할 수 있는 시간과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7일 오전 9시 다시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구단측에 따르면 구단은 지난해 11~12월부터 A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정황과 자료들을 확인하고 최근 이를 상벌위에 알렸다.

B, C 선수가 팀을 나갈 당시 이탈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A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다는 것이 구단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벌위에 해당 내용이 회부됨과 동시에 구단은 A 선수를 자택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I페퍼스 김동원 단장은 "어떤 선수도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자체 조사가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 상벌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따라 대처할 예정이다"며 "연패를 끊긴 했지만 그동안 패배가 너무 많았다. 이번 일에 대해서도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페퍼스 사무국은 상벌위의 결과가 나온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시페퍼스가 지난 23일 열린 한국도로공사전에서 득점 후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벌써 상금 6억 돌파...신진서, 상금왕 신화 다시 쓰나

농심배 '끝내기 6연승' 등 올 19승 1패...4년 연속 상금왕 기록

명실공히 세계 바둑 최강자 신진서(23·사진) 9단의 갑진년(甲辰年) 초반 행보가 예상치 못했다.

2000년 3월 출생한 용피 신진서는 자신의 해를 맞아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상금 6억원을 돌파했다.

매월 상금 랭킹을 발표하는 한국기원에 따르면 신진서는 1월에만 상금으로 3억6094만6000원을 벌었다. 2위인 변상일 9단(1억5951만2000원)보다 두 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다.

신 9단은 지난 1월 열린 메이저 세계기전인 LG배 결승에서 변상일을 꺾고 상금 3억원을 받는 등 KB바둑리그와 중국 갑조리그 등에서 11승 1패의 고공비행을 했다.

2월에는 '끝내기 6연승'으로 한국의 4년 연속 우승을 이끈 농심 신라면배를 포함해 8연승 질주 중이다.

신진서는 농심배에서만 LG배 우승에 버금가는 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체적인 농심배 우승 상금은 외부적으로 분배 방식을 공개하지는 않고 국가대표팀 내부 합의에 따라 나눈다.

한국기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우 농심배 우승 상금의 70%는 출전선수들이 균등 배분하고 20%는 승리 수당, 10%는 우승 결정 수당으로 지급했다. 즉, 우승 상금 5억원의 70%인 3억5000만원을 5명이 출전 수당으로 균등 배분하는 데 혼자 6연

승을 거둔 신진서나 단 1승도 올리지 못한 설현준 8단과 변상일·원성진·박정환 9단이 똑같이 7000만원씩 받는다.

총상금의 20%인 승리 수당은 1억원인데 이번 대회에서 승리를 거둔 선수는 신진서뿐이어서 혼자 차지하게 된다. 10%인 우승 결정 수당 5000만원 역시 신진서의 몫이다.

올해도 이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진서는 농심배 총상금 5억원 중 2억200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또 농심배는 우승상금과 별도로 선수 개인에게 대국료와 연습 상금을 지급한다.

대국료는 한 판당 300만원이고 연습 상금은 3연승이 1000만원인데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100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번 농심배에서 6연승을 거둔 신진서는 대국료로 1800만원, 연습 상금은 4000만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신진서가 농심배에서 받게 되는 총수입은 2억7800만원이 된다.

올해 들어 19승 1패의 놀라운 승률을 기록 중인 신진서는 1월 상금 수입에 농심배 상금만 보태도 벌써 6억원을 돌파하게 된다.

신진서는 한국 바둑의 1인자로 자리 잡은 2020년 이후 매년 상금 10억원을 돌파하며 4년 연속 상금왕에 올랐다.

한국기원 사상 연간 최고상금은 지난해 신진



서가 기록한 14억7960만원이다. 최절정에 이른 신진서의 기량을 감안하면 올해는 한국기원 최초로 연간 상금 15억원 돌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상하이에서 기적 같은 농심배 역전 우승을 견인한 뒤 24일 귀국한 신진서는 공항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세계기전에서 항상 이기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창혁, 농심 백산수배 초대 우승



안명식 농심 중국 법인장(왼쪽부터), 유창혁 9단, 최규병 9단.

<한국기원 제공>

일본 요다 상대 불계승 '시니어 바둑 삼국지' 정상

한국 시니어 프로기사들이 농심 백산수배에서 초대 우승컵을 차지했다.

한국의 마지막 주자 유창혁(57) 9단은 2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회 농심 백산수배 세계바둑 시니어 최강전 2라운드 본선 최종국에서 일본 마지막 주자 요다 노리모토(57) 9단에게 210수 만에 백 불계승했다.

이로써 한국은 '시니어 바둑 삼국지'에서 일본과 중국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이날 유창혁은 요다를 상대로 중반까지 팽팽한 균형을 이어갔다.

그러나 요다가 사변에서 무리한 수를 두자 벱락 같이 역습을 펼쳐 단숨에 승기를 잡았다.

요다는 이후 수습수를 더 뒀으나 집 차이가 더 벌어져서 결국 돌을 던졌다.

백산수배는 1969년 이전 출생 프로기사들이 출전하는 시니어 대회다.

한국은 이번 대회 첫 주자인 서봉수 9단이 중국 류샤오광 9단에게 패했지만, 두 번째로 나온 최규병 9단이 일본 히코사가 나오토 9단, 중국 차오다

위안 9단을 차례로 누르고 2승을 올려 희망의 불씨를 지켰다.

이어 조훈현 9단이 중국 마샤오춘 9단을 꺾고 1승을 더했고, 최종국에 출전한 유창혁 9단이 우승을 확정했다.

유 9단은 "초반은 어려웠지만 중앙 전투에서 요다 9단이 느슨하게 두면서 승기를 잡았고, 그 이후로는 편하게 뒀다"라며 "오랜만에 중요하고 큰 승부를 해서 사실 긴장도 됐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은 앞서 신진서 9단이 기적 같은 '끝내기 6연승'을 연출한 농심 신라면배에 이어 백산수배에서 동반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백산수배 우승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제한 시간은 각자 40분에 초읽기 1분 1회씩이다.

/연합뉴스

목포대 이승현 '전국 검도왕 대회' 우승

목포대 체육학과 검도부 이승현(3학년·오른쪽)이 '2024 전국 검도왕 대회' 정상에 올랐다.

이승현은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대학부 64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시즌 첫 대회에서 대국대 송태준을 2-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결승에서 용인대 김태현을 만나 2-1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검도부 지도교수인 박동철(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장) 교수는 "이번 대회 검도왕의 등극은 학생들의 불굴한 노력의 결과이다"며 "목포대 검도부는 올해 4월 완공 예정인 검도 전용도장 건립을 계기로 한국검도의 우수성을 전파·보급하는 중심 대학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파묘
- 2관 파묘
- 3관 도그데이즈, 서울의 봄
- 4관 파묘, 도그데이즈
- 5관 헝가
- 6관 파묘, [위드키즈]DMZ 동물 특공대
- 9관 시인덕희
- 7관 씨네커플 [20주년특가]이프 온리, 바튼 아카데미
- 8관 씨네커플 건국전쟁, 소풍, 애프터: 유혹의 끝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오 18:00) (오 18:00)

마리퀴리

GAC 포시즌 뮤지컬 마리퀴리

일시 : 2024-03-02(토) ~ 2023-03-03(일)

14:00, 18: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3

이상한 풍경

GAC 공모전시 윤우재 개인전 <이상한 풍경>

일시 : 2024-02-23(금) ~ 2024-03-2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즐거움

문화산책